

2023

06.10

CERIK 시장동향

2023년 6월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

○ 매매시장	2
○ 임대차시장	5
○ 공급	6
○ 수요	9
○ 금융	10
○ 부동산산업	11
○ 통계요약표	12

CERIK

Construction &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

한국건설산업연구원

당월 부동산시장 현황 요약 및 추이 분석

- 5월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추이, 낙폭 지속 감소해 서로 유사한 하락폭 기록(각각 0.16%, 0.21%)
- 반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8.3%와 9.7% 감소해 3월 연중 최대치에서 다소 물러나
- 전체 거래 중 분양권전매 거래 비중 6.0%로 지난해 6월 대비 거래량 2.1배 증가

- ◎ **(매매)** 5월 매매가격 하락폭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개선했지만 상승세로 돌려세우지는 못해
 -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월간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상승세로 반전 하는데는 실패한 모습
 - 3월까지 지속해서 거래량이 늘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지만, 4월 들어 매매거래량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감소하면서 향후 시장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상승
 - 소유권 이전 신청건별 직전 보유기간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10년 이상 비중이 감소해 장기 보유자들이 소극적 매매행태 보여
- ◎ **(임대차)** 전세가격도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낙폭 줄이고 있으며 그 속도도 5개월째 대체로 유지
 - 금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 하락폭은 0.40%로 조사됐는데 전월 낙폭 0.85%에 비하면 절반 수준 기록
 - 봄 이사철을 맞아 전·월세거래량이 증가했던 예년 패턴과는 다르게 3월과 4월 거래량 모두 전월대비 감소하는 패턴 띄고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
- ◎ **(공급)**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인허가, 지역별·부문별 집계를 통틀어 전체 감소 기록
 - 공공부문의 YoY 62.9% 감소를 필두로 민간부문에서도 지난해보다 20.5%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냄.
 - 지역별로는 지방광역시의 인허가 감소폭이 적은편이나, 인허가와 착공 간 시간이 길어질 개연성 있어
 - 수도권 제외 지방의 올해 4월까지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누적 대비 0.4% 증가했는데, 이는 작년에 미뤄온 사업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
 - 6월 분양 계획은 총 1.2만 호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5월 당초 계획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
- ◎ **(수요)** 세종시, 매수수요 및 전세수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돼
 -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째 상승해 5월 들어 90p까지 회복
- ◎ **(금융)** 시장의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 시점 연기돼 현재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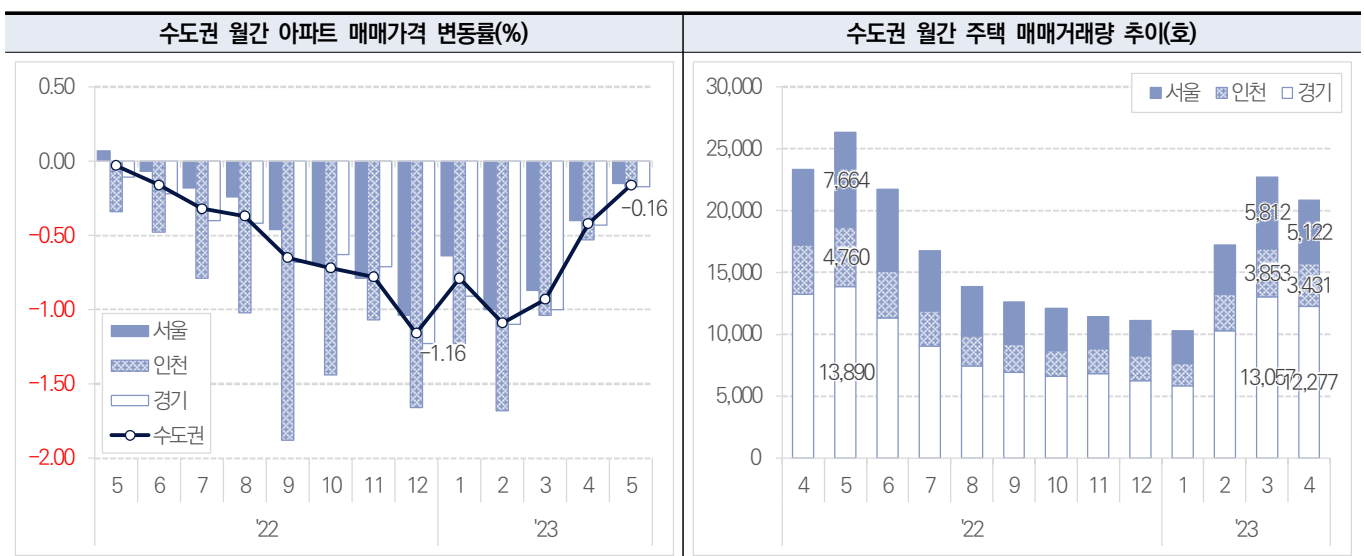
매매시장

1_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

- 5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, 3개월 연속 월간 낙폭 감소. 지난달 대비 낙폭을 0.26%p 줄인 0.16% 하락
- 4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2.1만호로 MoM 8.3% 감소. 3월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던 모습에서 다소 물러나

- ◎ (가격) 5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, 서울 0.15%, 인천·경기 각각 0.17% 하락해 수도권 종합 0.16% 하락
- 하락폭 둔화가 지역별로 차이가 났던 올해 1분기까지의 상황과는 달리 서울·인천·경기 각각의 가격 변화율이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 나타나
 - 이로써 수도권 연 누적 가격 하락 폭은 3.35%로 집계돼 여전히 연 누적 낙폭이 큰 구간을 통과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하락세가 거셌던 인천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12.3%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
 - 한국부동산원 등 타 기관 통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달 특정 지역에서 하락세를 마감할 수 있을지 확인 필요
- ◎ (거래) 4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월간 2만 호 수준을 유지(2만 830호)했지만 전월 대비 8.3% 감소
- 서울과 인천의 거래량이 각각 전월 대비 11%대 감소를 보였고 경기 지역도 전월 대비 6.0% 감소하며 지난달 매매거래량 증가 폭이 컸던 것과는 상이한 모습 나타내
 - 1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나 역사적으로 많은 거래량이라 보기는 어려움.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본격화됐던 지난 2017년 1월 이후 거래량 평균이 3.6만 호였던 데 비하면 57.2% 수준임.

수도권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

매매시장

2_지방(지방광역시·8개 도)

- 5월 지방 아파트 가격, 0.21% 하락하며 수도권과 낙폭 유사. 지난달 낙폭인 0.44%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 나타내
- 4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수도권과 유사한 흐름 보이며 지난달 보다 9.7% 감소한 2.7만호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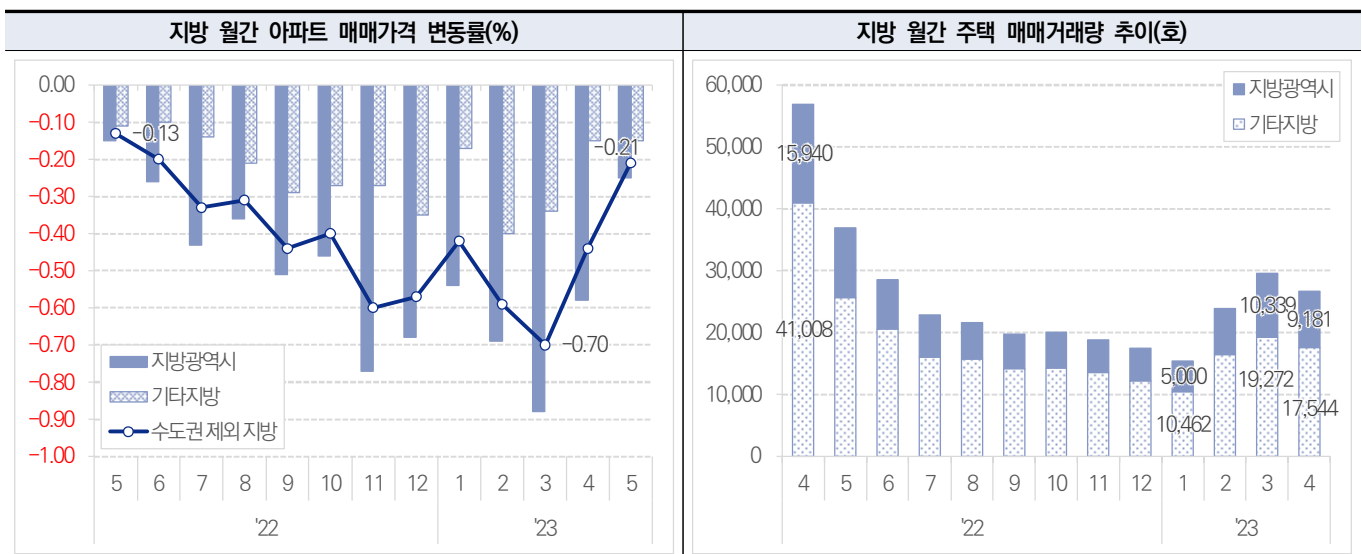
◎ (가격) 지방 아파트 가격은 2개월 연속 낙폭 감소세가 유사하게 유지돼 월간 0.21% 하락

- 지방광역시 -0.88% ^(3월) → -0.25% ^(5월) / 8개 도 -0.34% ^(3월) → -0.15% ^(5월)로 낙폭 감소
- 지방광역시 중 낙폭 최대 지역은 울산 동구(1.61%)로, 상승폭 최대 지역은 대전 중구(0.12%)로 집계
-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남 부여, 충북 진천, 전북 고창, 경남 진주, 경북 경주, 강원 춘천 등이며 그 중 고창 지역은 2022년 4월 이후 가격 변화가 집계되지 않다가 2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
- 당초 4월에 집계된 지방 아파트 매매가 하락률은 0.41%였지만 거래 사례 등이 추가되면서 0.44%로 낙폭이 소폭 증가함. 다만 지난달과 달리 낙폭이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되는 만큼 수치 조정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

◎ (거래) 4월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 2만 6,725호로 지난달 2만 9,611호 대비 9.7% 감소

-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월 대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에 비하면 70.7% 증가한 수치임.
- 다만 2017년 1월 이후 지방의 월평균 주택 매매거래량이 3.8만 호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여전히 평년 수준의 70.9%에 불과

지방 주택매매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주 : 매매가격 변동률의 경우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부동산114

매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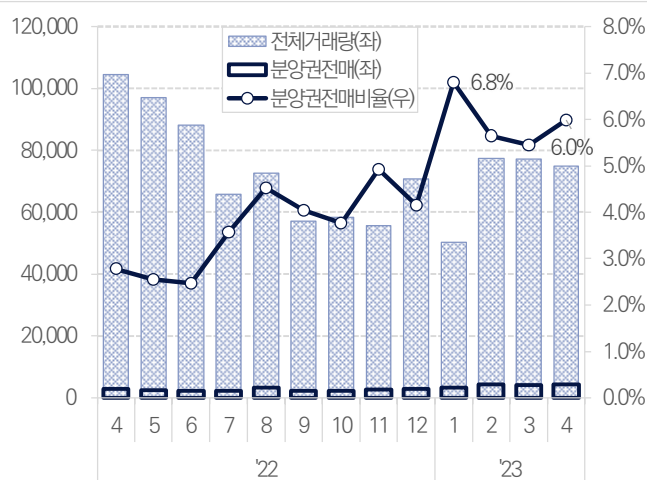
3_거래속성

- 전체 거래 중 분양권 전매 비중은 6.0%로 나타나 전년 하반기부터 증가 추세, 월간 증여거래는 5,400여 건으로 MoM 10% ↓
- 부동산 매도인 중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소유권 이전 신청건(매매) 비중 52.7%로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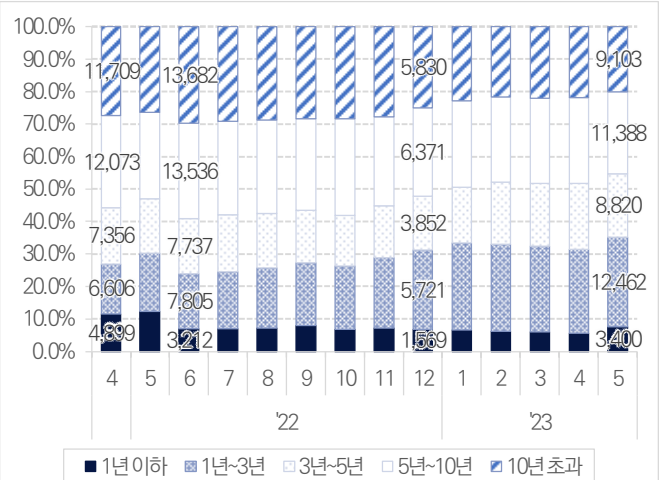
- ◎ (거래유형) 전체 거래 중 분양권전매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6.0%로 집계돼 지난해 6월 2.5%를 기록한 데 비해 3.5%p 증가했으며 거래량을 직접 비교하면 2.1배 증가(2,181호^(22.6월) → 4,479호^(23.4월))
-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발표됐던 정책들로 인해 분양권전매 거래가 가능한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전매 활성화가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어
 - 4월 전체 거래 중 증여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7.2%로 집계돼 지난해 연말(12월) 기록했던 19.6%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분석
- ◎ (보유기간) 보유기간 5년 미만인 소유권 이전 신청 비중은 52.7%로 전월 대비 2.8%p 증가한 반면, 10년 이상은 19.4%로 집계돼 20% 미만으로 하락
- 5월 소유권 이전 신청 건 중 보유기간이 집계된 4만 6,805건 중에서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소유권 이전 신청건은 2만 4,682건으로 전체의 52.7%를 기록
 - 반면 10년 이상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 신청은 9,103건으로 집계돼 전체 거래 중 19.4%로 분석

주택매매시장 거래 속성

전국 월간 주택거래량(좌, 건) 및 분양권전매거래 비율(우, %)



보유기간 별 전국 집합건물 매매거래 분포(%)



※ 주1 : '20년 4월 전국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87.8%로(동 기준; 경기도, 2020), 집합건물의 요체를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분석함.

※ 주2 : 등기 통계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속성을 지녀 전월 집계와 상이할 수 있음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법원 등기정보광장

임대차시장

- 5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MoM 0.40% 하락, 전월 대비 하락폭 절반 수준으로 감소
- 4월 전세 거래량 10.3만 건, 월세 거래량 11.7만 건으로 각각 MoM 14.8%와 18.8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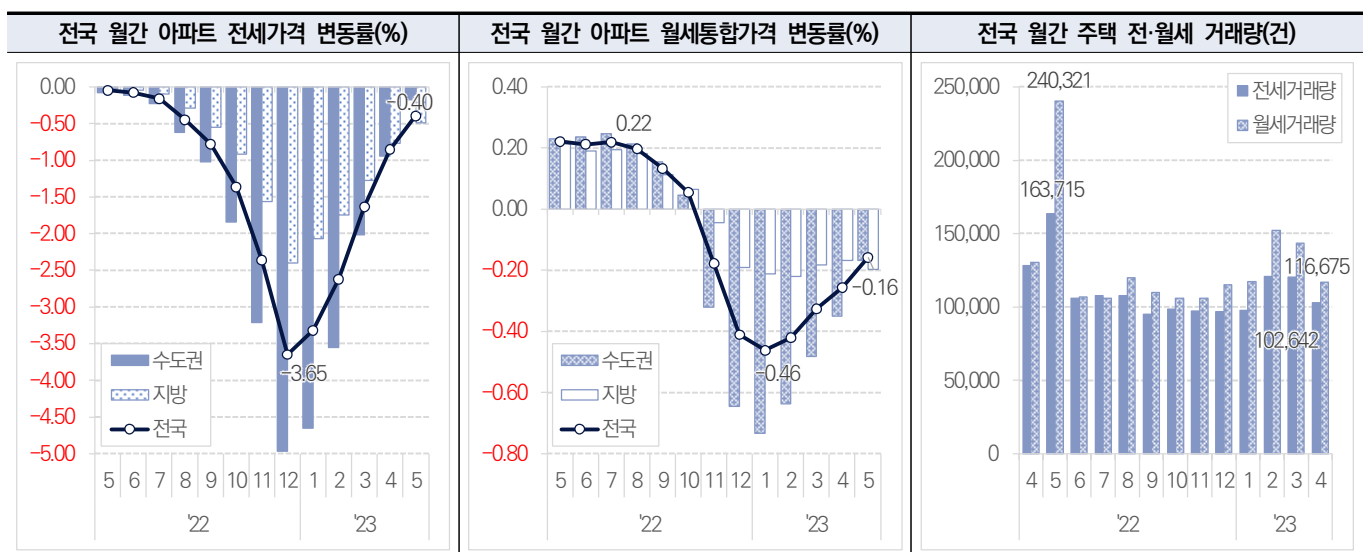
◎ (전세) 전국 아파트 전세가, MoM 0.40% 하락한 것으로 집계돼 5개월 연속 하락폭 감소

-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.18% 하락했고 지방은 0.49% 하락했는데, 수도권 낙폭이 더 컸던 지난달에 비하면(수도권과 지방 각각 0.94%, 0.77% 하락) 수도권의 낙폭 둔화가 큰 편
-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등 가격 하방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정 상품(다가구·다세대·연립·오피스텔·나홀로 아파트)에 집중되었고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누그러진 듯
- 봄 이사철을 맞아 전·월세거래량이 증가했던 과거 패턴과는 다르게 3월과 4월 모두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패턴을 띄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 있어

◎ (월세) 전국 아파트 월세통합가격¹⁾은 5월 0.16% 하락했으며,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했던 수도권이 지방보다 큰 낙폭을 보이는 현상 종료

- 5월 월간 수도권 아파트 월세는 0.17% 하락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월세는 0.20% 하락
- 지난 11월부터 두드러졌던 수도권 월세시장의 둔화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월세 낙폭이 더 큰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나 5월부로 종료

전국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및 거래 추이

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국토교통부

1) '월세통합가격(지수)'이란 월세, 준월세, 준전세 지수를 각각의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지수임. 이하 동일함.

공급

1_인허가

-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의 인허가는 지역별 부문별 집계를 통틀어 전체 감소 기록
- 다만 수도권 제외 지방의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누적치보다 증가

◎ (주택) 전국 주택 인허가, 전년 누적 대비 23.3% 감소한 12.3만 호

- 수도권(23.7%), 지방광역시(8.9%), 8개도(29.9%)를 가리지 않고 감소세가 계속해서 나타나
- 공공부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전월보다 개선됐으나, 전국 연누적 기준 전년보다 62.9% 감소(3,924호)

◎ (APT)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전년 대비 연누적 인허가는 증가세(0.4%)로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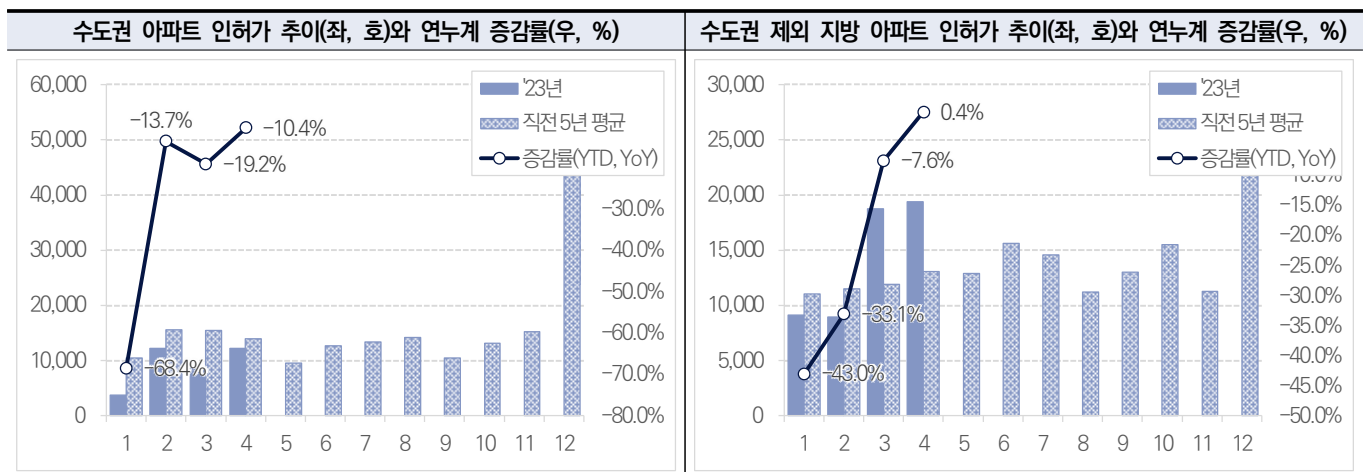
- 다만 이러한 추세는 현재 전반적인 사업 환경 및 자금조달 사정 등을 고려할 때, 지난해 지속해서 미뤄 왔던 사업의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

주택 인허가 현황(YTD)

인허가 현황 (호, %)	지역별 합계				공공부문				민간부문			
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	전국	수도권	지방 광역시	8개도
2022년 1~4월	160,842	58,431	33,323	69,088	10,574	5,382	3,050	2,142	150,268	53,049	30,273	66,946
2023년 1~4월	123,371	44,566	30,361	48,444	3,924	1,525	1,817	582	119,447	43,041	28,544	47,862
전년 동기 연누적 대비	-23.3%	-23.7%	-8.9%	-29.9%	-62.9%	-71.7%	-40.4%	-72.8%	-20.5%	-18.9%	-5.7%	-28.5%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아파트 인허가 추이

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공급

2_분양

- 5월 분양 계획물량은 약 2.7만호로 집계됐으나 실제 분양 물량은 1.4만 호 수준으로 크게 감소
- 5월 분양 계획물량은 약 2.7만호로 집계됐으나 혼란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계획과 실제 분양 물량 격차가 클 수 있어

◎ (수도권) 5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전월 감소세를 딛고 18.0% 증가한 9,068호로 집계

- 2023년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분양 물량이 증가(19.1%)한 것으로 분석됐고 전년 누적 분양 물량 대비 감소 폭도 54.0%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
-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3개월 동안의 물량 증가를 시장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없는 것은, 분양 물량의 증가와는 별개로 월간 분양 물량 자체가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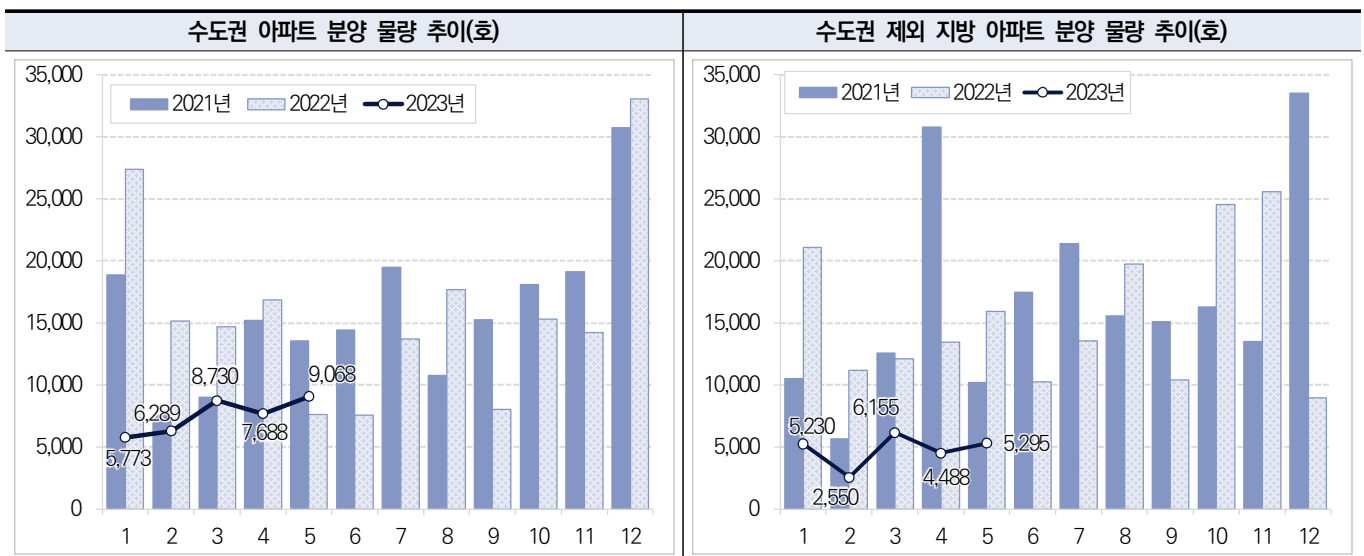
◎ (지방)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(18.0%)을 나타내며 월간 분양 물량 5,295호 기록

- 3월 대비 4월에 줄어든 물량의 감소폭을 모두 회복하기는 어려웠지만 지난 1월과 유사한 수준 나타내
- 하지만 지난해 같은 달까지 누적 물량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67.8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분양에 소극적인 업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음.

◎ (분양계획) 6월 분양 계획은 총 1.2만 호로 예상돼 5월의 당초 계획이었던 2.7만 호 대비 감소폭 커

◎ (입주계획) 향후 6개월(2023년 6월~11월) 전국 입주 물량은 약 23.6만 호로 집계되었으며, 사업유형별로는 분양 17.4만 호, 임대 2.8만 호, 조합 3.4만 호 등으로 구성(한국부동산원, 2023)

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



※ 자료 : 부동산1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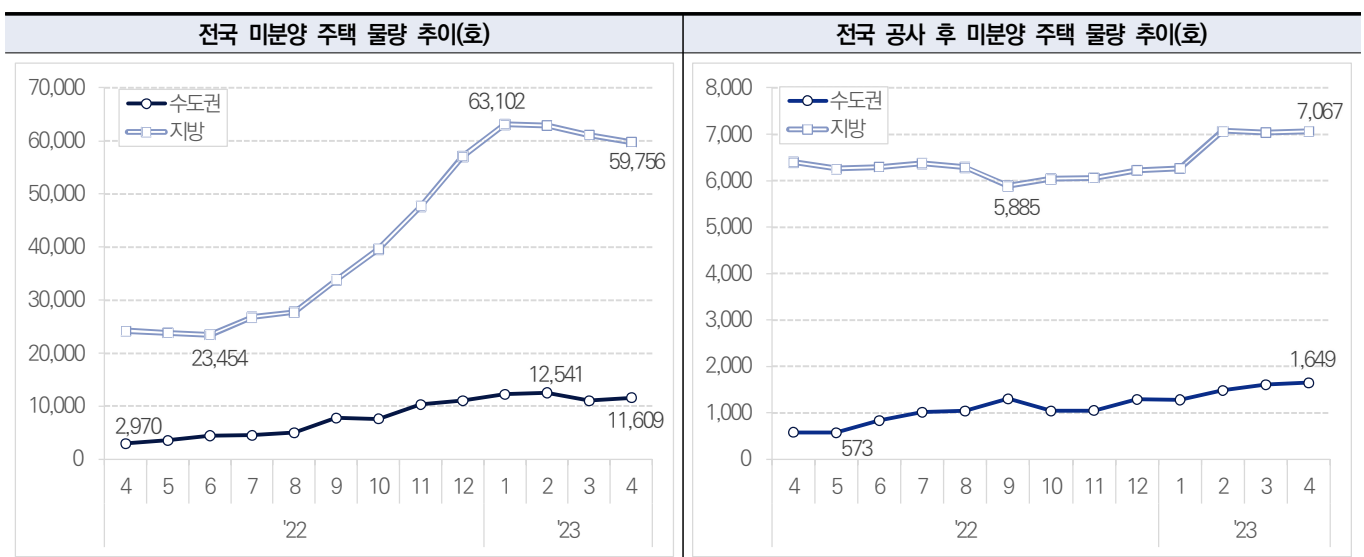
공급

3_미분양

-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7.1만 호로 집계돼 1.0% 감소...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총량 기준 지난 2월 대비 4천 호 이상 줄어
- 반면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은 8,716호로 전월 대비 0.8% 늘어나 미분양 주택 수 감소와 대비

- ◎ **(미분양)** 4월 들어 수도권 미분양 MoM 5.2% 증가(575호)했지만, 지방 미분양 MoM 2.2% 감소(1,314호)해 전국적으로는 1.0% 감소(739호)
 - 전국 미분양 재고 7만 1,365호로 집계돼 7만 호 수준을 유지했지만, 5월 이후 6만 호대로 줄어 들 수 있을 것인지 관심 집중
 - 지난달까지 미분양이 증가했던 인천 지역은 4월 들어 MoM 13.9%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
 - 4월 월간 미분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던 지역은 경기로서 MoM 17.1% 증가(1,095호 증가)
- ◎ **(공사 후 미분양)** 4월 수도권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은 MoM 2.3% 증가했고 지방은 MoM 0.4% 증가
 - 전국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지역의 전월 대비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의 증가량이 컸고, 지방에서는 대구, 부산, 전북 등에서 증가했지만 최대 10호 내외의 미미한 수준의 변화
 -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과거 대비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공사 후 미분양 주택의 물량은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분양 통계 신고를 의무화할 경우 더욱 증가할 개연성도 남아 있어

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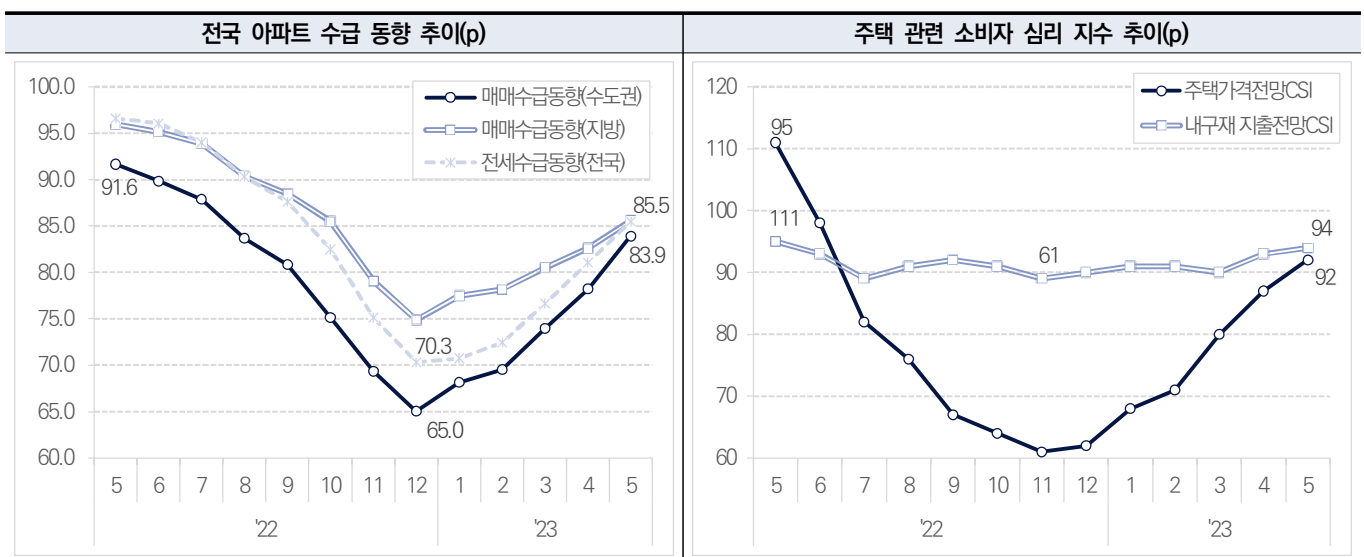
※ 자료 : 국토교통부

수요

- 세종시, 2개월 연속으로 전국에서 매수 수요 가장 높은 지역으로 드러나
- 주택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지수는 6개월째 회복 중이며 5월 들어 92p로 집계돼

- ◎ **(수급동향)**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동향은 지난해 말 65.0으로 집계돼 직전 저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
- 지역별로는 지난달보다 수급동향 격차가 더욱 감소함. 수도권(83.9p)과 지방(85.6p)의 수급동향지수 격차는 불과 1.7p로 지난 2021년 10월 지방이 수도권보다 수급지수가 높아진 이래 최저 격차 기록
 - 전국에서 가장 수급 지수가 높은 곳은 지난달에 이어 세종시(99.4p)로 조사됐으며 작년 12월 기록한 49.4p에 비하면 50p 가량 상승한 것임.
 - 5월 전국 전세 수급 동향 지수는 85.5로서 2022년 9월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국에서 전세수급동향이 가장 강세를 보인 지역은 매매수급동향에 이어 세종시로 조사돼(95.3p)
- ◎ **(소비자심리)**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, 6개월째 상승해 5월 들어 90p까지 회복
- 조사 대상별로 분류해보면 자가 가구가 94p로 나타났고 임차 등 가구는 90p로 나타나 자가 가구의 심리가 더욱 고조된 상태임. 지역별로는 인천을 포함한 6대 광역시에서는 91p, 기타도시에서는 94p로 집계돼 기타도시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

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및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



※ 주 :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생산되는 수급동향 자료 중 매월 말 지수를 월간 대표 지수로 처리하여 분석함.

※ 자료 :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

금융

◎ (금리)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부담은 유사한 속도로 완화되고 있으나 미국 금리의 경우 인하 기대 시점이 직전 조사보다 미뤄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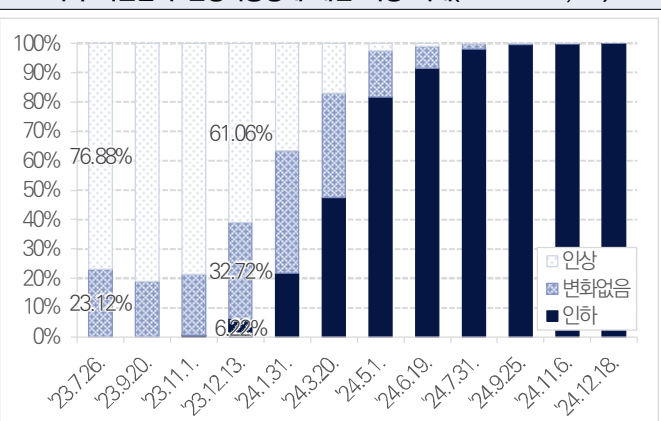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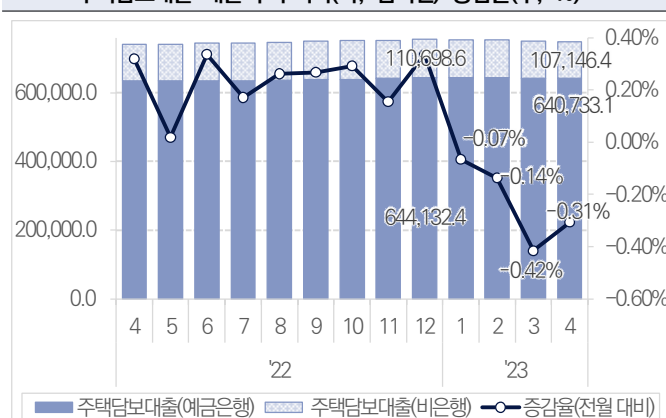
- 5월 신규 실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초 대비 1%p 가량 하락해 주담대 대비 하락폭 커
- 시장에서는 당초 올해 말이면 미국 기준금리가 하락을 기대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치며 내년 상반기에도 하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추세

◎ (대출액 및 연체율 추이)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전월 대비 주택담보대출액 감소세가 4개월째 이어지며 4월 잔액이 747.9조 원 수준으로 집계된 데 비해, 가계대출 연체율은 0.31%로 올해 들어 최대치 재경신

주택 시장 관련 금융 변수 추이

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추이(연%)^{주1)}

미국 기준금리 변경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(FEDWatch, %)

주택담보대출 대출액 추이와(좌, 십억원) 증감율(우, %)^{주2)}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(%)^{주3)}

※ 주1 :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,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월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금리 자료의 중위값임.

※ 주2 : 본 자료에서 비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, 신용협동기구, 우체국예금, 종합금융회사 등 은행이 아니지만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말함. 이하 같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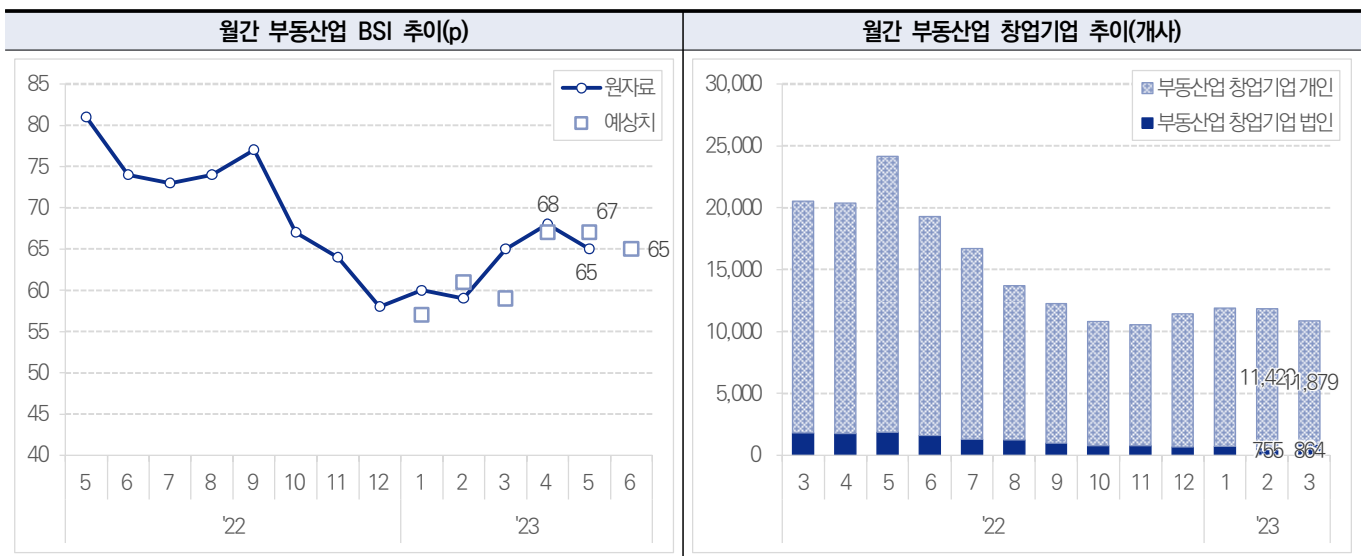
※ 주3 :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자료는 분기별로 집계되며, 임의로 분기 말(3·6·9·12월)에 입력하였음.

※ 자료 : 한국은행,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감독원, Chicago Mercantile Exchange

부동산산업²⁾

- ◎ **(부동산업 BSI)** '23년 5월 부동산업의 업황 기준 BSI는 65p로 집계돼 MoM 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돼 이는 전월 예상치인 67p에 못 미치는 수준 시현
 - 부동산업 BSI는 전년 하반기 동안 지속해서 하락한 이후 최근 들어 회복세에 있지만, 80p를 넘겼던 2022년 5월부터의 추세를 보면 하락세가 이어지는 형국임.
 - 6월 지수는 4월에 예상한 5월 지수보다 소폭 낮아진 65로 예상되며 부동산 업황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
- ◎ **(부동산업 창업기업 수)** '23년 3월 들어 창업한 기업 중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1만 885개 사로 집계돼 전월 대비 952개 사, 전년 동월 대비 9,368개 사 감소
 - 그 중 전월 대비 창업기업 수의 감소세를 주도한 것은 개인 기업으로, 전월 대비 1,06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전체 창업기업 중 법인과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.9%와 92.1%로 조사돼 지난해 말부터 나타난 법인 비중의 축소(최소 5.9%^(22.12월))를 회복하는 양상을 노정
 - 개인사업자 창업이 줄어든 것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증가 요인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중개업의 창업 감소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

부동산업 경기지수 및 창업기업 추이



※ 자료 : 한국은행, 중소벤처기업부

2) 본 고에서는 '부동산산업'의 범위를 데이터 출처의 정의에 따라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'L.부동산업(68)'로 정의함.

부동산시장 통계요약표

항 목		변화율 · 변화량						최신 집계치 ^{주1)}	최근 5년 변화 추이
		직전 5년		직전 3년		YoY	MoM		
		고점	고점대비	고점	고점대비	-	-		
		저점	저점대비	저점	저점대비				
거시 경제	경기선행지수 (p)	109.6	-0.2%	109.6	-0.2%	1.3%	0.1%	109.4	
		94.1	16.3%	98.5	11.1%				
	소비자물가지수 (p)	111.1	0.0%	111.1	0.0%	3.3%	0.3%	111.1	
		98.6	12.7%	99.6	11.5%				
가 격 지 수	수도권 아파트 매매 (p)	482.6	-7.4%	482.6	-7.4%	-7.3%	-0.2%	447.1	
		282.8	58.1%	356.3	25.5%				
	지방 아파트 매매 (p)	333.9	-5.3%	333.9	-5.3%	-5.1%	-0.2%	316.4	
		239.6	32.0%	256.1	23.5%				
거 래 량	수도권 주택 매매 (건)	75,725	-77.2%	75,725	-77.2%	-10.8%	-8.3%	20,830	
		10,299	67.4%	10,299	67.4%				
	지방 주택 매매 (건)	77,078	-68.9%	77,078	-68.9%	-53.1%	-9.7%	26,725	
		15,462	54.9%	15,462	54.9%				
공 급	전국 아파트 분양 (호)	64,264	-76.8%	64,264	-76.8%	-38.9%	18.0%	14,363	
		7,020	112.0%	8,839	68.4%				
	전국 아파트 미분양 (호)	75,438	-5.4%	75,438	-5.4%	162.6%	-1.0%	71,365	
		13,842	415.6%	13,842	415.6%				
금 용	주택담보대출 금리 (%)	4.82	-0.58%p	4.82	-0.58%p	0.34%p	-0.16%p	4.24	
		2.39	1.85%p	2.39	1.85%p				
	주택담보대출잔액 (십억 원)	754,831.0	0.9%	754,831.0	0.9%	0.9%	-0.3%	747,879.5	
		583,879.7	-21.9%	646,587.4	-13.5%				

※ 주1 : 통계 발표 시점에 따라 당월 혹은 전월 집계치를 활용함.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제외한 모든 수치는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함.

※ 주2 : 가격지수는 자료의 추가 수집 등 지수 작성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 갱신될 수 있음.

※ 자료 : 국토교통부, 한국부동산원, 한국은행, 부동산114

약어표(가나다 順)

용 어	내 용	비 고
BSI	기업경기실사지수(Business Survey Index)	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
CSI	소비자심리지수(Consumer Sentiment Index)	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
MoM	전월 대비 변화율(Month-on-Month)	
YoY	전년 동월 대비 변화율(Year-on-Year)	
YTD	연초 대비 누적 변화율(Year-to-Date)	